

#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6월 19일



## 복음 나누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19일)  
오천 명을 먹이시다.  
(루카 9,11L-17)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11L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루카 9,13)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드린 적이 있다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루카 9,17)

남은 열두 광주리는 12사도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 원천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랜서 기자인 케빈 카터는 1993년, 오랜 내전으로 기아가 극심했던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허기져 쓰러져 있는 어린이를 촬영했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일어날 힘도 없어 땅바닥에 몸을 엎드린 흑인 어린이, 그 옆에는 굶주린 독수리가 어린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뉴욕타임스>를 통해 카터가 찍은 <수단의 굶주린 소녀>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수단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안 돼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허기진 어린이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촬영할 생각부터 했냐는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진은 1994년 풀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카터를 향해 "인간성 대신 상(賞)을 택했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풀리처상은 윤리나 인간성과는 무관한 것이냐는 질책까지 무성했습니다.

카터는 그 사진을 찍은 직후 독수리를 쫓아내 소녀를 구했습니다. 당시 카터와 함께 취재 여행에 동행했던 동료 실바는 그가 소녀를 구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흐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사람들에게 실바의 말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카터는 혼자 괴로워하다가 3개월 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른셋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뒤 그의 자동차에서 이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에게 물을 주어야 할 것인가, 사진을 먼저 찍어야 할 것인가?"

남아공의 정치 항쟁과 탄압, 폭력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지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기자, 카터, 그의 질문처럼 과연 어떤 행동이 먼저여야 했을까요? 카터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아프리카 수단의 끔찍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64번 "떡과 술의 형상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소공동교회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교회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2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하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사명이요 제일가는 사명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이다

(선교교령 6항; 교회의 선교 사명 14항; 마테 10,16; 루가 10,3; 요한 17,18; 사도 22,21).

#### 선교는 하느님 백성 전 공동체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아 당신의 제자가 된 우리들을 세상에 파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들 위에 계시며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시고 당신 힘으로 모든 사도직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

(마르 28,16-20; 루가 24,46-49; 사도 1,8-9; 에페 3,8).

<다음 호에 계속...>